

## ●민주 소식

###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개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지난 6월 8일 오후 5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2천 여 명이 모인 이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는 1부 추모제와 2부 추모문화제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추모사와 분향 및 헌화에 이어 김형수 시인, 권희정 열사 추모사업회 노래패 봄날, 꽃다지 등의 추모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추모제에서 오종렬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상임대표는 열사가 염원하던 세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수레를 함께 밀고 나갈 것을 강조했으며 6월항쟁계승 반전평화대회 위원회 오충일 공동대표는 "6월항쟁은 민족민주열사들의 뜻과 말씀을 계승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며 "우리는 열사들을 추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사를 계승해 부활의 님으로 모시기 위해 왔다"며 열사들을 머리 숙여 추도했다.



### 부산민주공원 통일체험전 '그날' 개최

부산민주공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원내 기획전시실에서 통일체험전 '그날'을 개최했다. 전시회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및 해외동포 사진과 작가 이정수씨의 금강산 사진 등의 사진전과 더불어 북한 어린이가 보는 동화책과 애니메이션, 우표, 기타 생활용품 등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방학중에 열린 전시회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방문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습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

### 전국민주화운동관련 상이자연합(전민상련) 창립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있다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민주화 상자들이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7월 25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민주화운동관련 상이자연합(전민상련)이 창립식을 갖고, 창

립선언문을 통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시혜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을 거부하며 민주화보상법을 즉각 의결할 것을 주장했다.

## 민주공원 후보지, 수유리로 결정

민주공원추진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민주공원 건립이 많은 난항 끝에 수유리 4.19국립묘역 인근으로 결정되었다.

민주공원 건립사업은 2년 전인 2000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법' 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이 제정되면서부터 구체화 되었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은 남산 구 안기부터, 대모산 부지, 용산가족공원 가운데 한곳에 민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서울시내의 공원조성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조속한 공원부지 확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과 고건 전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 현장 답사를 거쳐 4월 25일, 4.19묘역 옆 수유4동 17-1번지 일대가 최종 대안으로 제시, 결정되었다. 이로써 2년 넘게 곱돌던 민주공원 부지논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북한산 그린벨트의 8천4백여 평이 해제됨에 따른 환경 훼손과 서울시와 정부만의 결정이었다는 밀실행정에 비판이 일고 있어 친환경적·친시민적 설계 및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합동 추진기구의 구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관합동추진기구의 결성을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추진위가 함께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에서 보장한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 구성촉구와 함께 중앙추진기확단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주화 묘역, 연이은 국립묘지 승격

5.18묘지에 이어 3.15성역공원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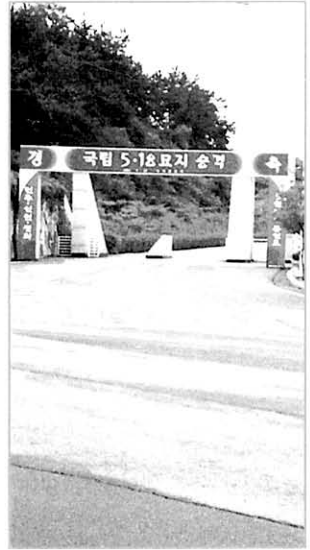
3.15성역공원을 국립3.15묘지로 승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립4.19묘지규정 개정령' 이 국무회의를 통과, 마산 3.15성역공원이 지난 8월 1일(목)부터 「국립 3.15묘지」로 승격되었다.

3.15성역공원은 경남 마산시 구암동 애기봉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집권에 최초로 도전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3.15의거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유적이 모셔져 있다. 1998년 3월 1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돼 오는 9월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3.15기념사업회와 마산시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15묘지 참배단에서 합동으로 '국립3.15묘지 승격기념 참배식' 을 가졌다. 김주성 3.15의거사업회장은 “그간 4.19에 묻혀 의의가 상대적으로 희석됐던 3.15마산의거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기쁘며 구암동 묘지에 안치된 영령들에게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더는 느낌” 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산3.15성역공원의 승격에 앞서 지난 7월 27일(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발효되어 정부의 5.18유공자 지원과 함께 광주 5.18묘지가 국



립묘지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지난 20여년 동안 '폭도' 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묘역에 묻혔던 '민주 영령' 들이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 셈이다. 이번 승격으로 3.15묘역과 마찬가지로 관리업무는 국가보훈처로 이관되고 안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차 임기종료, 2기 출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1차 임기가 지난 7월 24일로 종료되었다.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0년 8월에 구성된 1기 위원회는 그 2년의 임기동안 보상신청 1,295건, 명예회복신청 9,512건 등 모두 1만 807건을 접수, 이중 5,675건을 심의해 4,548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해직과 동의대 방화사건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사와 동의대 방화사건으로 희생된 경찰 가족 등의 반발을 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2기 위원회의 임기는 8월 9일 시작되었고 1기 위원회 임기 중 교체된 위원 2명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추천 및 정부 선임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의문사 노동자 진상규명 촉구

민주노총과 '의문사 노동자' 가족들은 지난 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단순 실족사, 자살 또는 실종으로 처리됐다"며 '의문사 노동자' 10인

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991년 노태우 정권 시절 의문사한 한진 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와 연안가스 신호수씨 등 노동자 10명이 공권력에 의해 타살되거나 사인이 은폐·축소됐다는 것.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부산·울산·경남지역 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 규명 투쟁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3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 온라인 기록전시관 개관

정부기록보존소는 일제 패망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기록을 담은 인터넷 기록 전시관을 열었다. 8.15 해방 57주년을 기념해 “해방과 정부수립”이란 주제로 지난 14일 개관한 온라인기획전시관(www.archives.go.kr)은 일제 패망부터 해방 당시 국내 상황과 미군정 실시, 5·10선거와 정부 수립,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정부 공식자료들이 비치됐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앞으로 3.1 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등에 관한 자료도 수집, 전시할 계획이다

## 5.18기념재단 광주비엔날레 작품 기증식 및 감사패 증정

광주비엔날레는 2002년 3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5.18자유공원에서 개최하였던 제4회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3 전시회를 마치고 32명의 작가 129점을 기증받아 5.18기념재단에 기증했다. 기증된 작품은 5.18자유공원 활성화는 물론 광주지역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5.18자유공원에서 비엔날레 전시를 계기로 두 법인은 5.18자유공원 활성화 대책수립 및 문화발전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기증식 및 감사패 증정식은 지난 달 19일(월) 오후 1시40분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앞에서 열렸으며 기증협약서 서명에 이어 이광우 이사장의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되었다.

## 손석용 열사 11년만에 명예졸업장 받아

지난 23일 대구대 후기졸업식에서 손석용 열사(당시 21세. 초등특수교육과)가 11년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손열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데 이어 모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게됨에 따라 민주제단에 바친 귀한 뜻을 기릴 수 있게 되었다. 89년 대구대에 입학한 손열사는 91년 8월 18일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옥상에서 분신 투신하여 이튿날 운명하였다. 명예졸업장 수여는 '손석용열사 추모사업회'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측이 이를 받아 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졸업장은 손신남 아버님이 대신 받았다.

## 5.18유족회, 경남 수해지역 돕기 방문

지난 24일(토) 5.18광주민중항쟁 유족회는 영호남 화합을 위한 경남 수해지역 돕기 방문을 했다. 경남 김해를 방문한 유족회는 1천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수해복구작업을 지원하였다.

## 공소시효배제를 위한 입법노력 활발

지난 1월 수지김 사건을 계기로 반인도범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6일(월)은 국가인권위 주최로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가 국가인권위 11층에서 진행되었다.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는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등 총 13개 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기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배제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대중서명전, 각종 토론회를 개최 및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의문사법, 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대회 열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8월 31일(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문사법 및 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명예회복법을 개정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하고, 3차 의문사특별법개정을 통해 9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여 의문사 사건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대는 촉구대회에 전날인 30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5.18기념재단, 명예훼손으로 지만원씨 고소

5.18기념재단은 사회시스템운동본부 지만원 대표가 지난 8월 16일 동아일보와 8월 20일 문화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 됩니다”라는 광고를 통하여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5월 관련자 604명의 뜻을 모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장 김후식, 5.18민중항쟁유족회 회장 정수만, 5.18기념재단 감사 이성길 등 3인을 고소인 대표로 하여 8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만원씨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하였다.